

'영차, 영차' 개미군단의 힘! 파죽지세 코스피 새 역사



코스피 3000 시대

(上) 개미가 끌어올린 韓증시

장 시작하자마자 3000 돌파
13년 만에 앞자리 바뀌어
외인·기관 팔자세 지속에도
개미 적극 매수로 하방 지지



6일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30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광판에 이날 오전 9시2분 기준 코스피가 장중 3000을 넘어선 모습이 담겼다. /한국거래소

코스피지수가 6일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연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코스피는 작년 3월 저점 이후 브이(V)자 반등에 성공했다. 작년 연말부터 연말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코스피 대전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학개미운동'을 펼친 개미(개인투자자)들이었다.

6일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상승 폭을 확대하더니 곧바로 3000선을 돌파해 한때 장중 최고 3027.16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25일 처음으로 2000선(2004.22포인트) 경신 이후 약 13년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36포인트(0.75%) 하락한 2968.21을 기록했다.

이날도 개인투자자들은 2조240억원을 사들이며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맞서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다.

◆올해도 이어지는 '동학개미운동'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열기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시장을 빠져나갈 때 개인만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며 시장을 지탱했다.

지난해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1월2일부터 12월30일 기준)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5조5372억원, 24조5651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47조4907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열기는 올해도 이어져 증시 개장일인 1월4일 코스피지수를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 올려 놓는 주역이 됐다. 이날 개인은 1조307억원,

외국인은 84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만 1조1878억원을 내다 팔았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차이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중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2900포인트를 웃도는 저력을 보였다"며 "지난주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12.6% 급증했다고 발표되면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1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순매수 성적표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기관은 1조7286억원, 외국인은

1253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1조7568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증시 하방을 단단히 지탱하는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증시로 쏠린 '머니 무브'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풍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0%대 저금리 환경 지속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돈의 특성상 '머니 무브(money move)'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메트로신문이 최근 주요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재테크 투자 유망상품 1순위로 '국내주식'이 꼽혔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주식시장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1월5일 69조4409억원으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최저치인 1월8일(26조9139억원) 대비 무려 158.07% 증가한 것이다. 최대치인 12월30일(65조6233억원)보다 5.82% 뚝 수치가. 지난해 평균(46조6235억원)보다는 48.94% 늘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 수도 올해 1월5일 기준으로 2078만개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최대치였던 12월31일 2066만개를 넘어섰다. CMA 잔고 역시 5일 기준 58

조6082억원으로 지난해 최대 금액인 12월30일 58조5475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20대와 30대의 주식투자 참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최근 주식투자 거래의 80%가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금리 지속과 풍부한 유동성, 기업실적 개선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코스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30.75%의 수익률로 마감한 가운데 특히 11월 이후 26.74% 급등하면서 연간 코스피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제조업 경기·수출 개선)로 국내 자산시장의 재평가와 수급 호조가 가세했기 때문에 연초 코스피 3000 돌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작년 연말과 연초 급등으로 단기 과열로 밸류에이션 부담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며 "올해 정책·유동성 모멘텀과 펀더멘탈 동력을 감안할 때 단기 투자심리와 수급 변화로 인한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염재민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공영방송 수신료, 단말기 공시지원금 손질

방통위 '5기 비전' 선포

방송 재원구조 개선... 역할 강화
단말기 지원금 범위 15% 확대
광고·협찬 등 규제 체계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가 가지는 공적 책무를 수행토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송통신 산업 활력을 찾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 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 범위를 현행 15%에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등 정책 손질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기 방통위에서 염두에 둔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다"며 "3, 4기 방통위가 그 이전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5기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

방송통신위원회비전및추진전략

신뢰받는 미디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구조 개선 디지털시대재난방송대응체계고도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성장하는 방송통신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역량 강화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춰 새 정책과제를 내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재원구조 손질
방통위는 먼저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구조 개편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 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인 방송 재원구조 전반도 손질한다.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

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도 고도화 한다.

지난해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경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시청점유율은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 해소하는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문제나 이용자 보호에 집중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투자자 보호 강화... 자산관리 '포커스'

>> 1면 '2021 미래를 코리아'서 계속

중·소형사 성과 위주 틈새시장 노력

◆수익원 다각화 필수...WM 강화

지난해엔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으로 해외투자 사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국내 증권사의 실적잔치가 이어졌다. 증시 호황으로 개인투자자를 필두로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며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순 없다. 주식회전율이 지금과 같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만큼 수익원 다각화는 필수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호황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주식거래 수수료는 계속 낮아지고 조만간 무료 수수료를 내세운 증권사도 등장할 것"이라면서 "브로커리지보다는 기업금융(IB), 자산관리 리지보다는 기업금융(IB), 자산관리

대형 증권사 위주로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WM 영역을 확대하고 나섰다.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등 전통적 사업부분의 수익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 증권업의 자산관리 부문 수익은 전체 수익의 6%에 불과했다.

미래에셋대우는 WM마케팅본부와 VIP솔루션본부를 WM총괄 직할로 편제했다. 서울의 지역 본부를 4개에서 5개로 늘렸다. 글로벌 주식 운영과 마케팅 사업에 더 힘을 주겠다는 의지로 풀

이된다. NH투자증권은 효율적인 종합 자산 관리를 위해 WM사업부의 5개 지역본부를 4개로 재편하며 고객지원본부를 신설했다. KB증권은 WM총괄본부 직속으로 CPC(고객·상품·채널)전략부를 새로 뒀고, 하나금융투자도 WM 그룹을 통합했다.

경쟁사들이 WM에 주력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IB전략컨설팅부를 신설하며 IB그룹의 전략 수립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 영역력 강화를 위한 M&A 인수금융3부를 추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넓히기 위해 개발금융담당과 프로젝트금융부, 대체투자담당도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에서 열세인 중·소형사도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다.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은 "아직 대형 증권사와 맞붙어 경쟁할 순 없기에 우리만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인력, 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재분배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증권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순 없으니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해 큰 성과를 냈던 부동산 PF와 IB, 채권, 트레이딩이 올해 역시 주요 전략 과목"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vin@